

마치야(町家: 상가주택)

에도 시대(1603~1867)에 무사 계급이 아닌 사람들의 주택은 농민의 주거지인 ‘노카(農家: 농가)’와 상인 및 장인들의 주거지이자 공방인 ‘마치야’ 등 두 종류가 존재했다. 현재 도시 지역에는 마치야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다카야마의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산마치 지구, 시모니노마치·오신마치 지구) 2 곳에는 마치야가 길게 늘어서 있다. 이 두 지구를 통해 에도 시대 후기 상인들이 살았던 마을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마치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거리에 면한 부분의 폭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치야는 안쪽을 향해 길고 좁은 형태로 되어 있다. 거리와 면한 방은 장사를 하기 위한 가게로 사용되었다. 또한 가게와 안쪽의 거실을 연결하는 복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복도를 ‘도지’ 또는 ‘도마(土間)’라고 부르는데, 신발을 신은 채로 다닐 수 있었다. 대부분의 마치야 부지에는 도조와 뒤뜰이 있었다.

마치야는 대부분 서로 비슷한 디자인이다. 이는 당시 법률에 따라 상인 계급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카야마에서는 집을 개축하거나 다시 지을 때 반드시 통치자와 이웃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상인들 간의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주변의 집보다 더 훌륭한 주택을 짓는 것은 좀처럼 허용되지 않았다. 집의 디자인과 크기가 서로 비슷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